

고규홍의 '나무 생각'



나무로 맞이하는 성탄

성탄절 즈음이면 떠오르는 나무가 있다. 호랑가시나무다. 육각형의 상록성 초목 이파리가 두껍고 딱딱한 데다 꼭짓점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유난스럽게 돋은 낮은 키의 나무다. 사납게 돌아난 잎의 가시가 마치 호랑이 발톱만큼 여세다. 생각에서 옛사람들은 호랑이발톱나무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느 지역에서는 호랑이가 등굣길로 써도 좋을 만큼 강하다는 뜻에서 호랑이등굣길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나무는 우리 남부 지방에서도 저절로 자란다. 전북 부안 도청리 납죽 바닷가의 산 중턱 지역에 떼를 지어 자라는 50여 그루의 호랑가시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 제122호로 지정돼 있다. 또 전남 나주 상방리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장에서 크게 활약했던 오득린 장군이 심었다는 호랑가시나무가 있어서 역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

호랑가시나무가 돋보이는 건 꽃보다는 겨울에 맺히는 새빨간 열매다. 짙푸른 초목의 잎 사이에 조롱조롱 맺히는 빨간 열매, 혹은 그 위에 하얀 눈이라도 소복이 쌓이면 겨울 숲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절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빨간 열매는 성탄절카드든 물론이고, 성탄절 나무 장식에도 이용하는 재료로 첫손에 꼽힌다.

호랑가시나무를 성탄절 장식에 이용하는 데에는 오래된 사연이 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을 때의 일이다. 그때 예수의 가시 면류관을 만든 재료가 바로 호랑가시나무였다. 호랑가시나무 잎의 가시는 예수의 맨살을 파고들어 흔들릴 때마다 고통이 심해졌고, 붉은 피를 섞 없이 흘리게 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의 운명을 안타까이 여기며 뒤따르기는 했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떨칠까진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했다.

그때 하늘을 날던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예수의 이마 위로 날아왔다. 로빈이라 불리는 방울새였다. 방울새 로빈은 작은 부리로 예수의 이마에 박힌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냈다. 한참을 뽑아내다 보니, 얇고고슬건 가시가 로빈의 어린 몸을 파고들었다. 얼마 쯤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로빈은 피를 흘리며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

은 사람이 업두도 내지 못한 일을 여리디여리 새가 죽음을 감수하며 해냈다고 감탄했다.

기특한 방울새 로빈을 잘 보호하자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건 자연스러운 순서였다. 로빈을 신성하게 여기게 된 사람들은 로빈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호랑가시나무의 열매를 잘 보호하게 됐다. 우선 로빈을 넉넉히 먹이고자 한 것이다. 심지어 프랑스 어느 지방에서는 길옆에 저절로 떨어진 호랑가시나무 열매를 짓밟기만 해도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호랑가시나무를 신성하게 지켰다.

그때부터 예수가 머리에 썼던 가시 면류관의 재료였으며 동시에 예수의 고통을 덜어 주려 애쓰다 죽어 간 방울새 로빈의 먹이기도 한 호랑가시나무는 예수를 기념하는 중요 재료로 쓰이게 됐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호랑가시나무를 장식으로 이용하게 된 사연이다.

그리스도교 문화권과는 다른 살림살이를 살아온 우리 옛사람들에게도 호랑가시나무는 집귀를 막아 주는 나무로 자주 이용됐다. 이를테면 겨우내 가지 위

에 맺혔던 빨간 열매를 겨울새들의 양식으로 모두 건네고 번 가지만 남을 무렵인 음력 이월 초하루, 호랑가시나무 가지에 물고기를 꿰어 문 앞에 걸어 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집귀를 막아 준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이처럼 나무를 이용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나무는 사람의 마을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증거를 보여 주는 예다.

지역마다 처음부터 사람은 나무와 더불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나무는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까닭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그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그 지역과 민족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살아가는 게 나무다. 나무는 사람들의 세상살이를 이뤄내는 시작이자, 세상살이가 꽃 피워 낸 문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나무를 더 오래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사연을 훑어보는 건 결국 '사람살이'의 열거를 찾아내는 일과 다르지 않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남성형 탈모, 치료하면 정말 나아지나요?



나용필 나용필도피부과의원 원장

"남성형 탈모, 치료하면 정말 나아지나요?" 탈모 치료를 위해 필자의 병원을 찾은 남성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대머리는 치료가 어렵다는 속설이 환자들 사이에서 떠돌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에 이러한 질문부터 던지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성형 탈모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 개선할 수 있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탈모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말이다.

탈모 하면 머리가 벗겨진 남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듯, 주로 대머리로 불리는 남성형 탈모는 전체 탈모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일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한다. 이 질환은 탈모 유전자를 지닌 남성의 모낭에 남성호르몬의 대사 물질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의 영향이 미치면 발생하는데, 모낭에 DHT가 작용하면 모낭을 위축시켜 굵고 건강한 모발을 가늘고 힘없게 만들면서 탈모를 진행시킨다. 또한 DHT는 앞머리와 정수리 부분의 모낭에만 작용하고, 뒷머리에는 작용하지 않아 남성형 탈모는 앞머리나 정수리 부위의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락하면서 점점 머리가 췌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탈모가 의심된다면 의심되는 부위의 모발과 뒷머리의 모발 굵기를 비교해 보고, 눈에 띄게 얇아졌다면 의료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형 탈모 치료의 기본은 모발을 가늘게 만들며 탈모를 진행시키는 DHT를 억제하는 것이다. DHT는 경구용 탈모 치료제 복용을 통해 억제할 수 있으며, 경구용 탈모 치료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DHT 억제를 통한 탈모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일본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탈모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탈모 초기 단계에서는 경구용 탈모 치료제만으로도 증상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보고자 하는 환자라면 바르는 탈모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면 한층 도움이 된다.

하지만 탈모가 중기 단계 이상이거나 약물 치료에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 탈모 환자에게는 모발 이식을 권한다. DHT의 영향을 받지 않는 뒷머리의 모발을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방법이며, 이식된 모발은 탈모가 발생하지 않고 영구히 자라게 되어 가시적인 증상 개선 효과가 크다. 가끔 탈모 부위에 모발 이식을 하면 더 이상 탈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약물 치료 대신 모발 이식을 먼저 요구하는 환자들이 있다. 하지만 모발이식한 부위의 주변 모발은 DHT의 영향을 받아 탈모가 계속 진행되므로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수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탈모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생활 습관도 동시에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필자는 항상 탈모 환자들에게 담배와 술은 끊거나 최대한 줄이라고 당부한다. 담배의 니코틴이나 술의 알데히드 성분 등이 탈모의 진행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연과 절주는 평생 건강을 위한 기본 수칙인 만큼 일석이조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두피를 항상 청결하게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건강하게 모발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건강한 모발을 지키기 위해서는 탈모 치료는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특히 약물 치료는 탈모 치료의 시작과 끝이다. 약물을 복용해야 탈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며 반대로 약물을 끊으면 탈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치료 계획과 건강한 생활 습관만 갖춘다면 대머리는 치료할 수 없다는 속설은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시험 난이도 법정에 서다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국가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국가가 자동차 도둑도를 부실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도 아닌데, 단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다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법적 공방은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사안을 단순하게 정리해보자. 내일 모레 있을 국어 기말고사 시험에 평균이 18점 나왔다. 학생들은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불만이 많았고, 이에 격분한 학부모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낸 교사를 법원에 고발했다면 해당 교사는 어떻게 될까?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당한 것일까?

이 사안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

제다. 사회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 법적용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난이도는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다.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레 겁먹고 포기한다.

쉽게 문제를 내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 그렇지 않다. 얄잡아보고 설렁설렁 공부한다.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가 중요하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고, 열심히 안 한 학생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시험 난이도 조절의 궁극적 목적이다.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 변별력이 없어서 평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최소한 정답률이 50% 이상은 나올 수 있게 조절한다.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것은 한 줄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가르치기는 저난이도로 가르치고 문제는 초고난이도로 내면 이번 수능처럼 정답률 18%가 나온다. 5지 선다형에서는 찍어도 정답률은 20%다. 문제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오직 변별력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다.

난이도 조절의 실패는 수험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출제자의 책임이다.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할 말이 있다. 55만 명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워야 하는데 이런 초고난이도 킬러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전적으로 출제자의 권한이고, 교육권에 해당되는 것일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교육 격정없는 세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에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평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들어서 법률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출제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여 공교육 기본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며, 정상적인 학습 과정과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많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난이도는 변별 기능도 있지만, 교육 평가의 원리로 보면 사실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더 중요하다.

이 법적 공방에는 많은 교육 과정 전

문가들과 현장 교사들이 참고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난이도는 이제 출제자의 편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니다.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적절한 정답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르친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 설 수 있다. 군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승패의 본질은 기본에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 지 잘 챙기지 않고 혼자 수업하는 교사는 '변별력' 확보도 못하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불수능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변별력 중심의 교육 풍토를 교육 과정 중심의 난이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토를 만들어 낼 것이다. 문제는 있다. 정답률 몇 %가 적정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나는 70%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능이 정상 난이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로.

社說

혈세 수익 원 날린 광주시 탁상행정 한심하다

광주시가 일곡지구에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집' 부지에서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더미가 발견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사실상 쓰레기장 위에 청소년 시설을 지으려던 것이어서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일곡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공사와 관련 건축·전기통신·건축기공·소방 등 4개 분야 시공업체와 감리 업체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부지인 일곡 제3 근린공원 일대의 터파기에 이어 파일 공사 도중 지하 7~10m 지점에서 쓰레기층이 광범위하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들 쓰레기는 1997년 이전 일곡지구 택지 개발 당시 매립된 생활 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부지 내 매장량이 6401㎥로 추정된다고 한다.

공사 중단에 따라 내년 3월 완공 예정이었던 청소년 문화의집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3개월이나 지연된 데 이어 또다시 늦춰질 수밖에 없고,

대체 부지 등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배정된 사업비 22억 4000만 원 가운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 금액을 제외하고 터파기 등에 투입된 3억여 원은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 다량의 쓰레기가 매장됐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랐지만 광주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도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로부터 30년 이내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가 관할 자치구에서 추천한 것으로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면밀한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로 인한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입지 선정 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직원 원칙도 없이 멧대로 뽑아서야

광주 지역 초·중·고교,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이사장 추천자가 산점 부여, 서류·면접 전형 생략 등 교직원 채용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위법과 비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13~2018년 광주 초·중·고 갑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직원들의 부당 채용 사례가 공·사립학교, 교육청 산하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적발됐다.

광주 호남삼육고의 경우 2010~2013년 4년 동안 기간제 교사 10명을 선발하면서 채용 공고, 전형위원회 구성, 심사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금주초교와 문산초교도 각각 2010년, 2011년 기간제 교사 채용에서 서류·면접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광주 중앙도서관에서는 올해 행정실무사 6명을 뽑으면서, 서류 전형(만점 40점) 최위위자로 분류된 2명(13위 18점, 14위 17점)이 면접 전형(만점 60점)에서 58.2점을 받아 각각 5위와 6위로 채용

됐다. 서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2명은 면접 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하기도 했다.

동아여고는 2011~2012년 기간제 교사를 각각 1명씩 선발하면서 '이사장 추천을 받은 지원자에게 서류 심사에서 25점을 준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적용했다. 금파공고, 충장중, 비아중에서도 부적절 채용 사례가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제 '채용 적폐'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직원 부당 채용은 취업대안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부 기간제 교사들이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거쳐 고단에 섰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이들 관련자들에게 대해 단순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과연 채용 비리 근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無等鼓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곳에 갈 때마다 늘 부러운 것은 공원과 광장이었다. 그곳에선 누구나 아스팔트와 시멘트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 여유와 어름림을 만끽한다. 다채로운 표정과 목소리에 늘어나 음악 혹은 행위예술 등이 더해지면 더없이 즐거운 공간이 되기도 한다.

도시공원의 대명사는 뉴욕 센트럴파크다. 면적 3.41㎢의 이 공원은 1800년대 맨해튼의 개발과 함께 조성됐다.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 할렘 미르호수, 잔디광장인 그레

중앙공원 개발

이론, 잔디광장인 그레이트론과 심메도,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아르

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발베데레성, 프랑스식·영국식·이탈리아식 정원으로 조성된 컨서버토리 가든, 베데스다 분수, 동물원 등 일일이 다 부르기도 어려운 명소들이 공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센트럴파크를 직역하면 중앙공원인데, 광주에도 면적 3.006㎢의 중앙공원이 있다. 이 멋진 공간에는 그러나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체의 8.4%에 해당되는 25만 2814㎡에 4106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데, 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나머지 91.5%를 매입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개발로 고층 아파트를 지어 업자들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 방식은 이제 공민마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 모두의 자산인 도시공원에 그동안 재정을 투입해 보존·정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을 탓하며 방치해 오다

이후고 시기가 닥치자 민간 개발을 허용했으니 이러한 정부·자치체의 잘못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개발 광풍이 몰아치

는 가운데 그나마 광주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공기업 참여의 길을 열어 광주도시공사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도시공사가 '땅 장사를 한다'며 평가절하해 어리둥절하게 했다. 공원 개발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최소한 공공기관이 공공 마인드에 기반해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도시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그 지위를 건설업체에게 넘겼다고 하니 서글픈 생각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01@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 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 리 국 227-9600	업무 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 실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